

English Worship Service

Pastor: Daniel J. Kim, Ph.D.

11:15 a.m @ Westminster Hall

Prelude

* Call to Worship

Praise & Worship

* Apostles' Creed

* Doxology

Representative Prayer

Offering

* Offering Song

* Offering Prayer

Welcome/Fellowship

Scriptural Reading

Anthem

Sermon

* Hymn

* Benediction

* Lord's Prayer Song

Pianist

Pastor

Praise Team

Congregation

Congregation

Brother Gaichuang Panmei

Congregation

Together

Pastor

Congregation

Pastor

Congregation

Pastor

Congregation

(* Please stand)

"Breath of God"

John 20:19-22; Acts 2:1-4

Today, on this Pentecost Sunday, we celebrat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upon the people of God. The Hebrew term for the Spirit is "ruach" and the Greek term is "pneuma." Both terms mean "breath" or "wind." Thus, the Spirit like breath-wind comes upon the people of God and brings new life and refreshing power. According to the Trinitarian theology, both the Son and the Spirit find their origin and source in the Father. In other words, they both proceed from the Father. But while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Spirit is eternally "breathed" by the Father. In these ways, as Irenaeus (an early church father) once described, the Son and the Spirit are the "two hands of God" who are extended out to all creation, especially the humanity. It is through the workings of the Son and the Spirit that the Father first created the world and continually sustains it. And after the Fall, the Father again reached out to the world through the Son and by the Spirit so as to redeem it and recreate i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outward movement of the Son and the Spirit from the Father is complemented by an inward movement back toward the Father. In other words, the Son and the Spirit who are sent by the Father must always return to the Father. The Son returns to the Father's bosom. The Spirit returns as the breath of God. In this continual movement (from the Father, back to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reaches out to us, recreates us, and restores us to the Father. Thus, through the Son and by the Spirit's leading, we must all return to the Father from whom we have all come (by virtue of creation). How gracious the Father is to send us both his Son and his Spirit to draw us all back to himself!

Announcements

-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oom 104.

- Please join our study groups at 1:00 pm in Room 104. Brother Guy is teaching the Gospel of John, and Sister Cing is teaching on the topic on "Esteem in Christ."

- Please join our Leadership Training Class (taught by Pastor Daniel) at 9:30 am in Room 104.

- We need volunteers (especially for soprano and tenor parts) to serve with the Jerusalem Choir.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토요꿈나무영여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청년 3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1 호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사랑부 예배	오전 10시30분	102 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새가족부	등록필수반	오전 10시
	직분자필수반	오후 12시40분
	학습보충반	오전 10시
	세례준비반	오후 12시40분
장 년 부(오전)	오전 10시	본 당
장 년 부(오후)	오후 3시30분	702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3호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 광 유문건

청년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노경호 천세종

교육전도사 최민혁 바다원 허승일 구본혜 Gaichuang Panmei YunZanCing

협동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김다니엘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권요셉에스더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강혜정(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려(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나형·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선교),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방월선교) 당, 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찌다, 시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짜, 짜유, 마카렐(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사누췌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존(방글라데시)

제23권 제2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3년 5월 19일



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모와 자녀의 성경적 역할” (Biblical Role of Parents and Children)

■ **엡 6:1-4**

우리가 비록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간의 초가지만 천국을 맞볼 수 있는 곳,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 128: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라나무 같으리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넘치는 기쁨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들로서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분명히 해야 하는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1.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엡 6: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할리어로 “**하복쿠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경청한다, 귀담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엡6:2**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람 된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먹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엡 6:2**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함을 이토록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존경할만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영어로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부모님과 애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명령은 자연의 명령 혹은 양심의 명령을 넘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따져가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2.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엡 6:4)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상처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녀들로 분노케 하며, 깊은 상처를 줬을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원력으로 제압된 아이들은 당장은 부모에게 잘못을 배는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상처를 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채찍을 들어도 그 훈계가 부모의 화를 다스리기 위한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자극한 사랑이 전제된 훈계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몇 대를 맞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때린 후에는 꼭 안아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가 성경적 역할을 다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엡 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명령만 있지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는 놀라운 약속이 유일하게 주어집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맺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또한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런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오세광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정수길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한상은 목사	박정선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속 4: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5(성령강림①)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83(172)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행 1:8, 2: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 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박노철 목사
(When the Holy Spirit Comes)	

- * 찬 송 Hymn 185(179) 다 합 께
- * 축 도 Benediction 인 도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가브리엘	조현정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현정15	양경실	윤중현1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대왕	김진형	박수강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호 산 나	서희숙	김윤지	홍해란			
수요 II 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묵 도	다 합 께
성 시	딤후 1:17 인 도 자
찬 송	515(256) / 580(371) 다 합 께
기 도	백수남 집사
찬 송	샘 134 / 샘 148 다 합 께
성 경	행 6:1-7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 설 교 자
* 찬 송	320(350) 다 합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임영숙 권사 II부: 문분순 권사
성 경	마 10:5-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들”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해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정수길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장석남 목사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 모 입
- 공동의회 / 19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 도르가 전도회 워킹맘 모임 / 19일(주) 오후1시 706호
 - 사라 전도회 월례회 / 19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 홍해작전 실행위원 모임 / 19일(주) 오후3시30분 607호
 - 70인전도대 팀장 월례회 / 19일(주) 오후4시 903호
 - 루디아 전도회 반찬 봉사 / 21일(화) 오전10시30분 8층 만나홀
 - 1교구 특별찬양연습 / 22일(수) 오후12시30분 501호
 - 16교구 찬양연습 / 24일(금) 오전11시 501호
 - 피택 집사, 권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25일(토) 오전6시10분 501호
 - 8교구 교구전체모임 / 25일(토) 12시(정오) 노원순복음교회 8층
 - 전 도 / 19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1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삼성, 도곡역출,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22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리브가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아간팀, 스테반회(한티공원)
23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파, 미도, 대치현대, 역삼라키, 구제, 개포주공3,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24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25일(토) 오후 2시 70인전도대 토요일노방팀, 아삭 선교회(한티공원)

-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ℹ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ℹ (Interpreter : Sarah Kim)
 - 학습세례식 신청 마감 / 6월 학습 세례식이 6월 16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6월 2일(주일) 문답총정리는 6월 2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9일(주일) 오후 2시 602호 에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 → 세례준비반
 -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문정희	3-9	리브가	강경아	서중렬	12-5	마가다락부	안내팀/이수연	김진우	교육	청년2부	본인
정윤덕	3-6	한나	희락팀	최지선	13-25	도르가	희락팀/배유진	이세영	3국	청년1부	김행란
한선희	5교구	한나	수요팀	전현욱	교육	청년2부	본인	천예준	교육국	초등부	본인
김정옥	5교구	마가다락부	안내팀/김영택	황진우		청년2부	안내팀	천준민		유년부	본인
김필순	3-15	마리아	본인	방민주		청년2부	본인	윤서연		유년부	희락팀/배유진
송미애	2-4	보뵈	본인	한상민		청년1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6.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7. 의료 상담 / 안인호(아내안후과) 이경진 하영인(성형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 결 혼
1. 신랑 Bjorn Sulen 군과 신부 김지은 양(8교구 김광철 집사, 주익현 권사의 장녀) / 5월8일(수) 노르웨이
2. 신랑 박대우 군(박동백, 조순자 성도의 장남)과 신부 권오영 양(13교구 권영준 집사, 손성실 권사의 차녀) / 25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 장 례
1. 故 김순복 성도(배경애 전도사의 시모) / 9일(목) 별세, 11일(토) 발인
2. 故 이정숙 권사(10교구 김태삼 집사의 모친, 조숙자 권사의 시모) / 12일 별세, 14일(화) 발인

누룩 운동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질적 성장을 말씀하셨다. 한덩이의 작은 누룩이 항아리 속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 주님의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제도를 고치면 사회가 변화될 줄 아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들의 오만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룩 운동을 이 사회 속에서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천국복음누룩운동 본부인 교회가 천국복음을 확산시킴으로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잡아주고 부패한 부분은 도려내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어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로 거듭나게 해야할 것이다. 언어생활,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 생활에까지도 새롭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누룩을 던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 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는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으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